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Feb. 15, 2026

(통권 1094호)



오늘의 말씀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방향이다”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mailto: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http://www.churchofthelord.org)

오늘도 우리는 이 시리즈의 고정 선언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정렬되어진 삶이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trying harder, but about living aligned with the Spirit).”

서론 ~ 다락방에서 십자가의 길 위로...

우리는 최근 새벽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13~14장에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빠진 그들의 감정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고, 십자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정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길(way)을 바꾸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믿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머리의 확신과 동의로 끝나지 않고, 길 위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순종하여”는 헬라어로 [ὕπακούω(히파쿠오)] 입니다. 이 단어는 [ὑπό(아래에서)] + [ἀκούω(듣다)] 의 합성어입니다. 즉, “아래에서 듣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듣는 태도의 방향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계획을 다 이해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지도를 받고 나서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은 확신이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들었을 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정적 확신(conviction)에서 끝나지 않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확신이 더 생기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순종은 감정이 충분해진 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의 이동입니다. [ὕπακο ὤω]는 “듣고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 의미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배울 때마다 그의 즉각적 순종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에 즉시 움직였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길이 갖추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치는 않았지만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의 성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의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하인 둘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처소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0일이 걸릴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 일찍 출발했고, 사흘 만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으니, 무엇이든 하인들에게 시킬 수도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아래 하인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왜 하인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인들이 함께 올라갔다면, 나무를 지고 가는 일, 나무를 패고 불을 피우는 일, 도살을 위해 필요한 많은 물을 운반하는 일을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타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애초에 제거하고 떠난 것입니다. 하인들을 데려갔다면, 하인들이 아브라함을 만류하고, 힘으로 제압하여 절대 그 일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요인을 애초에 제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배운 대로, 이때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30세에서 40세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삭이 아브라함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겠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을 인생을 통해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결박되어 자기를 불사를 나무 위에 올랐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신을 내려치려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적 모형을 설정하시는 일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진 자”, 누구니까? 모세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죠? 에녹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 누구니까?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니까? 다윗이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 누구니까?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믿음의 조상”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그를 바라보는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친구)”입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도 모르는 내 마음, 학교 선생님도 모르는 내 마음, 목사님도 모르는 내 마음, 그 마음을 친구는 압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기 십상이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닿지도 않을 훈시를 한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친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Oh, I get you.” 어린 시절 종종 가출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같이 가 줍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속에 간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을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고자 하셨던 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가 집에서 밤을 맞이했을 때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가 모리아 산으로 오는 내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귀한 말씀을 더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잘 보세요. 야고보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백은 있으나 방향은 바뀌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의 궤도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공해 주신 것이 요즘 새벽예배를 통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의 다락방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교리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길은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길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제시된 길을 따라 걷는 데는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이 1도만 바뀌어도 목적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가 항해할 때, 1도의 방향 수정은 아주 미세하지만, 장거리를 운항했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대륙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방향 수정입니다. 오늘의 삶에서의 1도를 수정하는 순종이 10년 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인도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의 삶은 열심(특히 자기 열심)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깊은 적용 ~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내 삶에서의 관계의 선택은 예수님의 방향과 일치하나요? / 나의 재정의 사용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일치하나요? / 내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 정렬은 반드시 이동을 낳습니다.

지난 주 우리는 “정렬(Alignment)”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정렬된 믿음은 반드시 이동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고, 제자들은 배를 버렸고, 바울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선언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향을 바꾸는 삶입니다(Living as a true believer does not begin with stronger conviction, but with walking in the direction the

Spirit leads).”

오늘의 기도 포인트들입니다.

- A. 주님, 내 믿음이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 B. 내가 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방향을 바꾸게 하소서.
- C.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 D.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소서.